'분서'와 '갱서'의 정신을 생각한다

배문성 | 시인 · 《문화일보》 북리뷰 팀장

책이란 무엇인가? 글쓰기는 책 출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요즘처럼 '만인에 의한 만인의 책 출간' 시대에는 글쓰기 자체가 곧 책 출간으로 연결될 만큼 이 둘의 행위는 구별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나아가 이런 시스템 속에서의 새로운 글쓰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책상 앞에서 홀로 글을 쓰고 있지만, 그는 이미 그 글을 읽을 많은 독자들을 앞에 두고 있으며, 그의 글은 당연하게 어떤 형태로든 책으로 출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글쓰기와 출간하는 행위가 요즘처럼 거의 동시간으로 진행된 적은 없어 보인다. 생각해보면 출간은 곧 글쓰기의 종착역이 아니던가. 어쩌면 새로운 사유, 새로운 글쓰기는 책으로 묶이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전혀 다른 시스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출간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글쓰기가 가능했던 두 사례는 '글쓰기=출판'이란 등식 아래 진행되는 현대출판의 관행을 반성케 한다.

카프카 최대의 아이러니는 그레고르 잠자의 '변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고를 불태워버리려 했다는 데 있다. 카프카가 일기에서 '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읽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에 온전하게 삶을 거는 최초의 작가를 만난다. "한편으로 내 눈앞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환희였다"고 카프카가 말할 때, 우리는 이 작가를 '글쓰는 이(책의 저자가 아닌)의 주체성'에 주목한 최초의 작가라고 부를 수 있다.

그의 작품이 펼치고 있는 내적 논리는, 자신의 원고를 불태워버려야 할 충분한 이유를 내장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카프카의 소설은 불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 그 자체며, 그에게서 원고 소각은 이미 임무를 완성한 글쓰기의 용도폐기로 받아들여진다.

윤동주의 시집에서 우리는 '분서'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갱서'(坑書)를 찾을 수 있다. 알려진 대로 윤동주가 필사본으로 정리한 시집 원고는 친구 정병욱의 고향집 땅 속에 묻혀 있다가 해방 이후 시인이 죽고 난 뒤 출간됐다. 카프카와 다른 점은 윤동주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시집을 출간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도다. 그러나 일제 말 그의 시집이 출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다분히 반일적인 정조가 지배하고 있는 그의 시집이 당시 현실에서 출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이 분서와 갱서의 이벤트를 통해 출간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시를 쓰는 시인, 글쓰기를 통해 불화를 이겨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화 그 자체를 글쓰기를 통해 이룩하고 있는 작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학을 만나는 것이다.

글쓰는 것과 출간하는 것을 같은 행위로, 거의 동시간에 이루는 작업이라고 믿고 있는 듯한 현대의 많은 작가들에게서, 삶과의 전면적인 고투를 벌이는 전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출간한다는 행위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작가의 정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글쓰기는 새로운 조건에서 태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출판저널 격주간 · 값 2000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통권 제310호 | 2001년 10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이사 — 임홍조
편집자문 —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 박천홍
기자 — 강성민 김장근 차정신 박옥순
사진 — 김경록
편집디자인 —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박기아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 · 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 722 - 1174
E - mail —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 chulpan
천리안 —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댁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